율하도서관 동아시아고전읽기
내 마음의 한시(연주시격) 1주차

□ 시를 읽기 전에 기억할 두 가지
_첫째, 시는 興(감흥, 흥기)이다.
-둘째, 시는 形象(말하지 않고 말하는 것. 말안말)이다

_첫째, 시는 興(감흥, 흥기)이다.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논어, 泰伯-

시에서 (감정을) 일으키고, 예에서 (이성을) 세우며, 악에서 (인격을) 이룬다

詩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논어, 陽貨-

시는 감정을 일으킬 수 있고, (시는) 마음을 살펴볼 수 있으며, (시는) 사람을 모을 수 있고, (시는) 세상을 비판할 수 있다.

-둘째, 시는 形象(말하지 않고 말하는 것. 말안말)이다
-<옥계원> 3수의 차이

옥계원
玉階怨　우염(虞炎)

紫藤拂花樹
黃鳥度靑枝
思君一嘆息
苦淚應言垂

보랏빛 등덩굴이 꽃나무를 건들고
노란 새는 푸른 가지를 지나네.
님 그리워 그저 탄식하노라니
쓰린 눈물 정녕 떨궈지누나.

옥계원
玉階怨　사조(謝朓)

夕殿下珠簾
流螢飛復息
長夜縫羅衣
思君此何極

석양에 물든 전각에 주렴을 나리니
나는 반딧불이 날다가 다시 쉬는구나.
긴긴 밤 비단옷을 짓는데
그대 생각은 이다지도 어이 하염없느뇨

옥계원
玉階怨 이백(李白)

玉階生白露
夜久侵羅襪
却下水晶簾
玲瓏望秋月

하얀 섬돌에 이슬방울 자라더니
밤이 이윽하자 비단버선에 스미네.
되레 수정발을 내리고는
영롱할사 가을 달을 바라보누나.

□『唐宋千家聯珠詩格』(약칭, 「연주시격」)

1. 흥에 겨워
-漫興

두보

糝徑楊花鋪白氈	길에 붙은 버들개지가 하얀 담요를 펼치고
點溪荷葉疊靑錢	시내에 점찍은 연잎은 푸른 동전을 포개었네.
竹根稚子無人見	대나무뿌리맡에 새끼 꿩은 사람에게 뵈지 않는데
沙上鳧雛傍母眠	모래밭 위 새끼오리는 어미 옆에서 조는구나.

-출전:
-『전당시』권227, <絶句漫興九首> 제7수

-시제:
-㊀ 漫, 通作謾, 縱逸也. 漫興, 猶言逸興也.
'만'은 통행본에 '만'으로 되어 있다. 놓여져 흩어지다는 뜻이다. '만흥'은 '일흥(逸興, 제흥에 겨워)'와 같다.

-1~2구:
-㊀ 糝字、點字, 乃下字妙處, 無此則止成童子對偶耳.
'삼'자와 '점'자가 바로 하자(下字, 글자를 두다)가 묘한 곳이다. 이것이 없다면 고작 어린아이의 대우(對偶. 대구를 맞추다)일 뿐이다.
-㊁ 糝, 以米和羹也. 徑, 步道也. 小道不容車, 故曰步道. 楊, 蒲柳也, 江東人通名楊柳. 楊樹葉短, 柳樹枝長. 鋪, 陳也, 布也. 氈, 撚毛也. 荷, 芙蕖[1]也, 其根藕, 其莖茄, 其葉蕸, 其本蓉, 其華菡萏, 其實蓮. 疊, 累也, 積也.
'삼'은 쌀로 국을 끓인 것이다. '경'은 걷는 길이다. 소롯길이라 수레가 지날 수 없다. 그래서 '보도'라고 했다. '양'은 갯버들이다. 강동 사람들은 통상 '양류'라고 부른다. 양수는 잎아 짧고, 유수는 가지가 길다. '포'는 늘어놓다, 펼치다는 뜻이다. '전'은 털을 비벼 꼬아만든다.

1) 芙蕖: 学名은 Nelumbo nucifera Gaertn이다. 수련(睡莲, 学名 : Nymphaea tetragona)과의 식물로, 이미 활짝 핀 荷花를 부르는 이름이다. 다년생의 수생 식물이다.

‘하’는 부거이다. 그 뿌리는 ‘우’, 그 줄기는 ‘가’, 그 잎은 ‘하’, 그 근본은 ‘용’, 그 꽃은 ‘함담’, 그 열매는 ‘연’이라고 부른다. ‘첩’은 포개다, 쌓다는 뜻이다.

-3구:

-원 稚子或以爲笋, 或謂當作雉鳥之雉.

‘치자’를, 혹자는 죽순(笋)으로 생각한다. 혹자는 마땅히 ‘雉鳥(꿩)’의 ‘雉’로 써야 한다고 말한다.

-보 本集註: “稚子, 乃甫之子宗文也. 甫有二子, 一曰宗文, 字稚子; 二曰宗武, 字驥子.” 則稚子乃宗文也, 審矣. “筍根稚子無人見”, 此尋兒不見, 忽於竹叢邊得之, 遂有是句, 復何疑乎? 『桐江詩話』云: “唐詩蓋謂笋之脫籜, 如小兒之解繃, 便以稚子爲笋, 則非也. 少陵詩本特誤以雉爲稚耳. 蓋笋生乃雉哺子之時, 言雉子之小, 在竹間, 人不能見也.”[2)]

본집의 주에, “‘치자’는 바로 두보의 아들 종문이다. 두보는 아들 둘이 있었다. 첫째는 종문으로 자는 치자요, 둘째는 종무로 자는 기자다.”라고 했다. 곧 ‘치자’는 바로 종문임이 분명하다. “筍根稚子無人見”, 즉 아이를 찾아도 보지 못하다가, 문득 대숲가에서 찾고는 드디어 이 시구를 지은 것이다. 다시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동강시화』에 이르기를, “당시에서 대체로 죽순이 대꺼풀 터지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포대기를 벗어나는 것과 같으니, 곧 ‘치자’는 죽순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다. 소릉(두보)의 시는 본래 다만 ‘치’를 ‘치’로 잘못 적은 것일 뿐이다. 대개 죽순이 나는 것은 바로 꿩이 새끼를 먹일 때이다. 즉 작은 새끼꿩이 대숲에 있어서 사람이 볼 수 없었던 것이다.”라고 했다.

-4구:

-보 鳧似鴨而小, 長尾, 背上有文, 卑脚短喙, 水鳥之謹愿者也. 傍, 近也, 倚也.

‘부’는 오리를 닮았는데 몸집은 작고, 꼬리는 길며, 등에 무늬가 있다. 다리가 짧고 부리도 짧다, 물새 가운데 근실하고 차분한 놈이다. ‘방’은 가깝다, 의지하다는 뜻이다.

2) 『초계어은총화』 전집 권12.

2. 절구

-絶句

두보

兩箇黃鸝鳴翠柳　　두 마리 노란 꾀꼬리 푸른 버들에서 울고
一行白鷺上靑天　　한 줄기 하얀 해오라비 파란 하늘로 오르네.
窗含西嶺千秋雪　　창은 서산의 천 년 쌓인 눈을 머금었고
門泊東吳萬里船　　문은 동오로 만리 떠날 배를 묶었어라.

-출전

-『전당시』 권228, <絶句四首> 제3수

-시제

-보 絶句者, 截句也, 句絶而意不絶. 蹙煩就簡, 最爲難工. 有截律詩前後四句, 或截前四句、後四句, 至有截中二聯者. 必運意活動, 有含蓄不盡之思. 承接之間, 更加轉換, 宮商自諧, 雖止四句, 有餘味焉.

'절구'는 구를 자른 것이다. 구는 끊어져도 뜻은 끊어지지 않는다. 번쇄한 것을 압축하여 간소하게 만드는 것은 가장 공교롭기 어려운 일이다. 율시의 전후 4구를 자르면서 혹은 전4구를 자르거나 혹은 후4구를 자르고, 가운데 2련을 자른 경우도 있다. 뜻을 운용함이 살아 움직이도록 기필하며 함축하여 사라지지 않는 생각을 담는다. 이어받아 접속하는 사이에 다시 전환을 더하는데, 궁상의 가락도 그대로 조화롭다. 비록 고작 4구이지만 여미(餘味, 여운)를 지니고 있다.

-1,2구

-원 前輩謂二句極盡寫物之工.

전배들은 두 구가 사물 묘사를 극진하게 한 솜씨가 있다고 말한다.

-보 鸝, 陸璣云: "黃鸝留, 關西謂之鸝黃, 俗呼黃離留, 或謂之黃栗留. 幽州人謂之黃鶯, 一名倉庚, 一名商庚, 一名鵹黃, 一名楚雀." 鷺, 舂鉏,[3] 水鳥也, 好潔而白, 脚長喙長, 頭上有毛數十枚, 長尺餘.

'리'는, 육기가 이르기를, "황리류를 관서에서는 리황으로 부른다. 세속에선 황리류라고 부르고, 혹은 황율류라고 부른다. 유주인들은 황앵으로 부른다. 혹은 창경, 혹은 상경, 혹은 려황, 혹은 초작으로 불린다."라고 했다. '로'는 '용서'로 물새이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며

3) 용서: 《尔雅·释鸟》鹭舂鉏。《注》鹭头翅背上，皆有长翰毛。今江东人取以为睫攡，名之曰白鹭縗。禽经曰：鸂飞则霜，鹭飞则露，其名以此。步於浅水，好自低昂，如舂如锄之状，故曰舂锄。

빛깔은 하얗다. 다리가 길고 부리도 길다. 머리에 터럭 수십 가닥이 있으며, 키는 한 길 남짓이다.

-3,4구

-원 含、泊二字亦下字用功處.

'함' '박' 두 자가 또한 하자가 공들인 곳이다.

-보 西嶺, 卽蜀西山也, 又謂之雪嶺. 白雪四時不消, 故云千秋雪. 附舟於岸曰泊, 東吳在揚州之域, 東際大海, 西控震澤, 爲東南一都會, 卽吳國之地. ○本集註: "甫欲南下, 乘萬里之船, 而歸東吳也."

'서령'은 곧 촉의 서산이다. 또는 설령으로 부른다. 하얀눈이 사시에 녹지 않기에 '천추설'이라고 말한 것이다. 배를 강안에 붙이는 것을 '박'이라고 부른다. '동오'는 양주 지역에 있는데, 동쪽으로 바다와 접하고, 서쪽으로 진택과 붙어있어 동남지역의 도회지를 이룬다. 곧 오나라 땅이다. ○본집의 주에, "두보는 남쪽으로 내려가, 만리길을 떠날 배를 타고 동오로 돌아가고 싶었다."라고 했다.